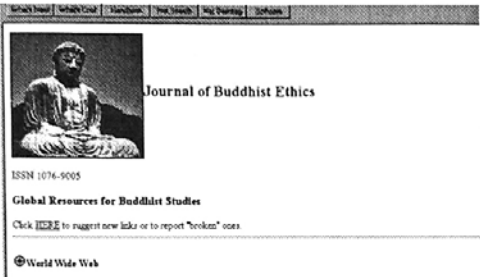


부다피아 사이트 여행



불교실천윤리지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와 자료가 산재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분류해 놓고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해 주는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인터넷을 한참 사용했을때 가능하다.

이트로 이동하는 경우, 또다른 방법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사이트를 분류한 포인터 파일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이트. 현재 이곳에서는 △월드와이드웹(92개) △고퍼(21개) △FTP(4개) △뉴스그룹(22개) 등으로 불교관련 사이트들을 분류해 놓고 있어 정보를 분류해 다양한 색인어를 만들어 놓고 이용자가 색인어를 선택해 해당 사

이트로 이동하는 경우, 또다른 방법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사이트를 분류한 포인터 파일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이트. 현재 이곳에서는 △월드와이드웹(92개) △고퍼(21개) △FTP(4개) △뉴스그룹(22개) 등으로 불교관련 사이트들을 분류해 놓고 있어 정보를 분류해 다양한 색인어를 만들어 놓고 이용자가 색인어를 선택해 해당 사

“裨補사상 환경론과 접목하자”

전통불교·도선사 '도선의 생애 사상' 학술회의

도선의 생애와 사상을 재조명하는 학술회의가 대한전통불교연구원(원장 김지건)과 도선사(주지 동광) 공동주최로 31일 광주 남도에 순화관에서 개최된다.

김지건 박사(대한전통불교연구원장·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논문 '도선의 사문상(沙門像)'을 통해 도선스님은 두타행(두타)을 통해 배를 구했던 훌륭한 선승(禪僧)이며, 이는 도선스님의 법맥이 확실한데서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박사는 중국 사천성의 정종사(淨宗寺) 무상화상(無相和尚)관계 문헌들이 고증되면서 신라 선종문중의 동산 개산조 해철스님(785~861)과 중국의 서당지장(西堂智藏)스님(735~814)의 법맥이 신라 무상(無相)스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드러난만큼 도선스님은 당연히 선승이라는 설명이다. 또 풍수지리의 비조로서 '裨補' 혹은 '裨補'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는 것은 고려왕실이 그들의 불리한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뜻에서 당시 높은 덕으로 백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도선스님을 빗대어 없었던 사실을 날조한 후대 사람들의 문헌에 따른 것이며, 오늘날 이를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커다란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의견에 김정호 관장(목포농업박물관)도 동의한다. 김관장은 논문 '도선실록과 도선의 오해(誤解)에서 환경론실설 등을 비롯한 풍수에 관한 온갖 설화는 裨補인 도선스님에 대한 도덕적 모독

이며 논리의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고려 왕권이 개국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당시 사회풍조와 민중 신앙화되어 있던 풍수설과 비보(裨補)론에 기댈 수 밖에 없던 상황에서 도선스님을 정당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를 앞둔 오늘날에는 裨補論을 자연보호와

느낄 때마다 국내외의 선현(先賢)을 추념하면서 이를 극복하려 했으며, 도선스님을 포함해 원효, 의상, 진표 등 고려중기에 건립된 신라 고승 4기의 비(碑)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병현교수(서울대)는 논문 '도선의 풍수지리설과 고려의 건국이념'에서 태조는 유교정치사상에 입각한 국가의 건설방향을 제시했으면서도 왕실기반의 안정을 위해 풍

관(混合觀念)이라는 주장을 폈다. 지방호족 출신인 태조는 자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유학의 한계점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풍수사상 등의 현실적 일반의 관념형태와 유교정치사상을 적당히 조화하는 선에서 신국가의 이상과 그 운영원리를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혼요십조 가운데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3개조목을 살펴보면 여

민심·지세안정 위해 요지마다 절·탑 세워 무상·혜철 맥 잇는 선승...권승 평가는 잘못

환경적응 이론에 접목시키는 신토불이(身土不二)의 도선사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허홍식교수(정신문화연구원) 역시 '고려중기 사상과 선각국사(仙覺國師)의 의의'에서 고려가 시대적 위기를

수지리설을 집약한 '혼요십조'와 같은 교훈을 백성에게 내리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것은 풍수지리설, 불교사상, 유교사상, 산신제정신앙(山神祭政信仰) 등 각종의 관념형태로 뒤섞여 이루어진 일종의 혼합

기에는 불교를 국교로 천명해 민심을 안정시키고 국민을 통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비보사상 등은 정책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닌 태조 자신도 이에 대한 깊은 신앙을 보이고 있음은 주목해야 할 사실이며, 태조대에 개경과 서경에 세운 많은 사탑(寺塔)의 창건 의의와 그밖에 개태사(開泰寺)와 같은 지정학적 요지(要地)에 세운 사탑 등의 의의가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최창조 전 서울대교수는 '한국 풍수지리설의 구조와 원리'에서 도선종수의 본질은 한마디로 땅에 대한 사랑이며, 그 방법론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고침(治療)의 추구라는 논리를 펴고 있어 흥미를 끈다.

한명우 기자

Table with 2 columns: 주제 (Topic) and 발표자 (Presenter). Topics include '도선의 사문상(沙門像)', '도선국사와 관련한 문화유적', '도선국사와 도선시', etc.

“日 행기스님은 백제왕족”

흥운기박사 10년간 사료추적 다시 밝혀

일본 최초의 대승정으로 나라(奈良)지방의 동대사(東大寺)에 있는 세계 최대 금동불상을 조성한 행기스님(668~749)은 백제왕족으로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해준 왕인박사의 직계후손이라는 사실이 다시 밝혀져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일본역사상 최고의 고승으로 추앙받고 있는 행기스님의 행적과 사료를 지난 10여년간 추적해온 흥운기

(信傳) '원형석서(元亨釋書)'를 제시했다. 서기 749년 음력 3월23일자 모친인 '대승정 사리비기'는 법위(法護)가 법행(法行)인 행기스님의 죽은 아버지의 위(諱)는 재지(才智)로서 본래 백제왕자 왕인의 후손'이라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또 1322년 전30권으로 간행된 (원형석서)에는 '행기 대승정은 백제왕의 자손으로 천지(天智) 7년에 태어났다'는 기록과 함께 스님의 계보와 가족사항, 포교활동 등을 자세히 적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일본은 1992년 출간된 '일본어대사전'에 '나라시대의 고승인 행기 스님은 성무천황의 귀의를 받고 동대사 대불(大佛)을 건립한 일본 최초의 대승정'이라고만 밝혔을 뿐 왕인박사의 후손이라고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왕인박사와 행기스님의 관계 등 이번에 밝혀진 사실은 최근 출간될 흥운기박사의 저서 '행기 큰스님'(자유문화사)에 실려 있다. (우)

왕인박사 직계 후손 墓誌·승전자료 확인

흥운기박사(문학박사·일본전수대 前연구원)에 의해 확인됐다. 흥운기박사는 지난 18일 '천황에 의해 일본 역사상 최초로 최고의 승적인 대승정에 모셔져 지금까지 일본에서 부처님의 화신인 '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행기스님은 왕인박사 후손인 백제계 왕족과 백제여인 사이에 태어났을 이 기록에 의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흥운기박사는 행기스님이 왕인박사 후손임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료로 나라지방의 죽림사에 전하는 행기스님의 묘지(墓誌) '대승정 사리비기(大僧正舍利碑記)'와 14세기 초에 간행된 승전

밝은 마음달 계수나무 베어지고...

Advertisement for '백양사 청운당' (Baekyangsa Cheongwondang) featuring a photo of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and text about Buddhist teachings and a lecture by '권영환' (Kwon Young-hwan).

증평 남하리절터 복원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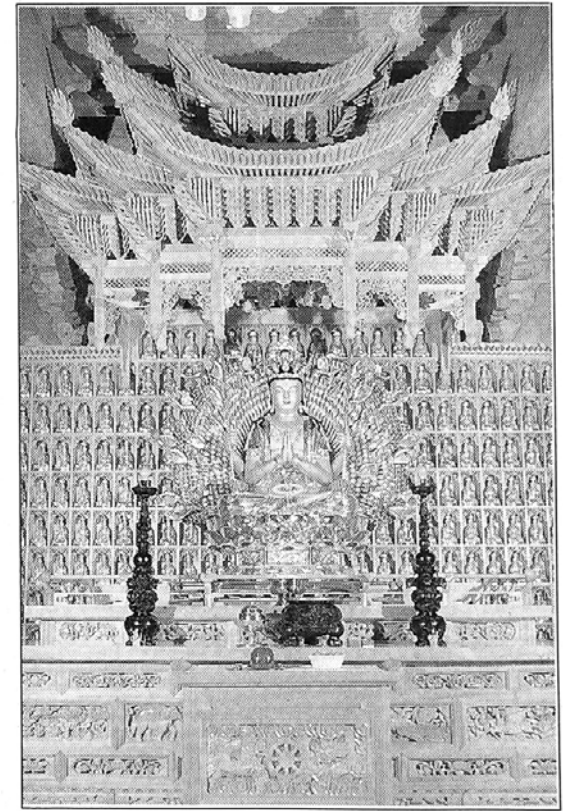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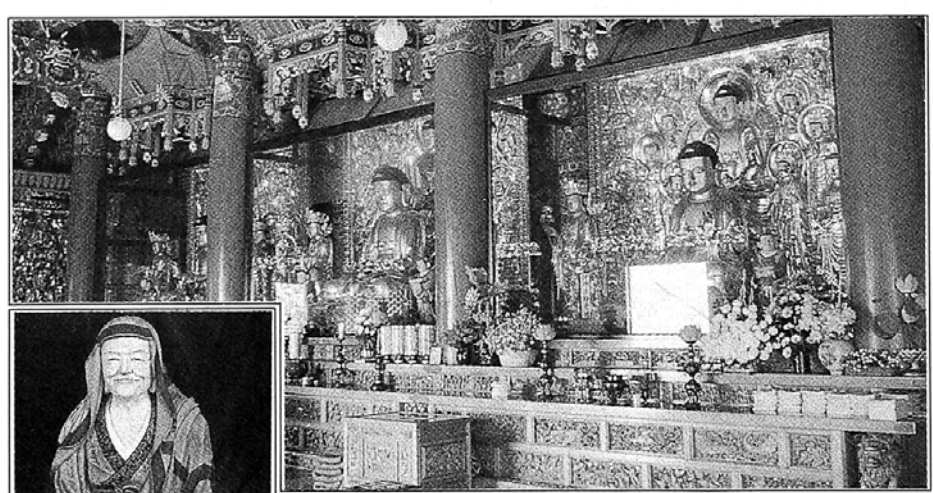
석불 훼손된채 방치... 화재위험도

충북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41호인 증평을 남하리 3층석탑이 있는 남하리절터를 정비·복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남하리사지의 3층석탑과 불상의 주변은 심하게 더럽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의 위험성마저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불상이 조각된 알반은 중화작용으로 크게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 보존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3층석탑을 비롯, 삼보산 기슭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삼보산 등 유적이 복합적으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증평을 남하리 일대는 지난 93년 지표조사결과 남하리사지 조성배경 등에 대한 연구가치가 높은데다 사찰이 있던 흔적이 발견돼 추후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와 관련 증평을 관계지는 '사찰규모와 삼보산 등 인근 유적과 연계시킬 경우 남하리사지의 복원 가치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데라우치문고 서울특별전 8월 25일까지 궁중유물전시관 문화재관리국은 7월 29일부터 8월 25일까지 궁중유물전시관에서 올해초 일본으로부터 환수된 데라우치문고 서울특별전을 개최한다. 데라우치문고는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1만8천전에 달하는 동양삼국의 역사자료를 모은 것. 이 속에는 고려사를 비롯해 남하리사지 조성배경 등에 대한 연구가치가 높은데다 사찰이 있던 흔적이 발견돼 추후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02)753-2582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전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진형 합장